

김경탁의 중국어 한글 표기 체계에 대한 고찰

서미령*

[국문초록]

본 논문은 그동안 연구된 바 없는 철학자이며 한학자인 우암 김경탁의 『중국어발음해석』(1939)과 『중국어(1)』(1940)에 기록된 중국어의 한글 발음 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어 성모의 한글 표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ㅇ+音素’의 형태 /^ㅇ/, /^ㅇ/, /^ㅇ/, /^ㅇ/를 사용하여 설첨후음 [tʂ], [tʂʰ], [ʂ], [ʂ]를 표기하였고, 설면음은 [tɕ], [tɕʰ], [ɕ]는 /ㅈ/, /ㅈ/, /ㅈ(ㅈ)/로, 설첨전음 [ts], [tsʰ], [s]는 /ㅊ/, /ㅊ/, /ㅊ(ㅊ)/로 표기하였다. 둘째, [p]는 /ㅍ(ㅍ)/로, [t]는 /ㄷ(ㄷ)/로, [k]는 /ㄱ(ㄱ)/ 등 두 세트로 표기하였다. 셋째, [f]를 /ㅍ/로 표기하였다. 넷째, [l]는 /ㄹ/로 표기하였다. 중국 운모의 한글 표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i]는 /ㅣ/로, [ɨ]는 /-ㅣ/로, [ɯ]는 /ㅡ/로 표기하였다. 둘째, [ai]는 /ㅏ/로, [ei]는 /ㅑ/로, [uai]는 /ㅓ/로, [uei]는 /ㅕ/로 표기하였다. 셋째, [au]는 /ㅗ/로, [iau]는 /ㅛ/로, [ou]는 /ㅜ/로, [iou]는 /ㅠ/로 표기하였다. 넷째, 『중국어(1)』에서는 [ɤ]을 /ㅓ/로 표기하고, 『중국어발음해석』에서는 /ㅓ+^ㅇ/로 표기하였다. 이외에 『중국어(1)』의 한글 표기 체계와 비슷한 시기에 출간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주제어: 김경탁, 성모, 운모, 성조, 한글 표기

Kyung-tak Kim, initial, fianl, tone, Chinese to Korean translitertio

한 『지나어대해』(1938), 『중국어회화전서』(1939)의 한글 표기 체계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의 고찰은 역외(域外) 한어사의 공백을 채울 수 있고 또 한어 어음의 방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또 동일시기 중국에서 출판한 한어 교과서, 그리고 음성학 저서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

1. 들어가기

최근 한국에서 출간된 근대 이후 중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는 선문대학교 중한번역연구소에서 『한어회화서(漢語會話書)』(2009)와 『한어회화서속편(漢語會話書續編)』(2011)의 출간을 계기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 시기의 문헌자료는 사역원에서 출간한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계열의 역음서(譯音書)와는 달리 개인이 출간 혹은 필사한 것으로 비록 체계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 중국어 변천사를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1910~1945) 중국어 학습서 『중국어발음해석(中國語發音解釋)』(1939)과 『중국어(中國語)(1)』(1940)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두 문헌의 저자는 동양철학자, 한학자, 교육자인 우암(愚庵) 김경탁(金敬琢)(1906~1970)이다. 김경탁은 유명한 동양 철학자로서 특히 철학분야에 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았다. 그러므로 현재 연구는 그의 철학 분야의 저서 및 사상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필자는 한학자인 김경탁의 업적을 살펴보면서 그가 중국어 강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저서도 남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그의 저서 『중국어발음해석』은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중국어 음성학 책자로 그의 음성학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일제강점기 출간된 기존 중국어 관련 문헌을 보면 대부분 중국어 회화 교재 앞에 수록한 예언(例言) 혹은 서언(序言)에

서 그 교재의 발음 표기 체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비록 편폭이 길지 않지만 『중국어발음해석』은 현대중국어 음성학 교재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한국인이 쓴 중국어 음성학 교재 또한 찾아보기 힘들어 희귀성이 있는 문헌자료이다. 필자는 김정탁의 음성학 체계가 실제 교재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다가 『현대지나어공식회화(現代支那語公式會話)』(1938)와 『중국어(1)』 두 권을 찾았는데, 앞 저서는 중국어 발음을 일본어로 표기하였고, 후자는 한글로 표기하였기에 본 논문은 후자를 기본 텍스트로 정하였다. 그의 한글 표기 체계는 당시로선 보기 드문 중국어 잡지 『중국어(1)』을 통하여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이 잡지는 후속 편이 보이지 않아 연속 발간 여부를 알 수 없다.

우선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박형익(2014)은 「1945년 이전 한국의 중국어 학습서와 사전의 서지 조사」에서 김정탁의 저서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김현철·김아영(2015:168)은 ‘책 앞 부분에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와 『만주국국가(滿洲國國歌)』가 있어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색채가 강하게 느껴진다. 이 책은 모두 39면의 얇은 책인 반면 내용은 단순한 중국어 회화만으로 구성되진 않았다. 책의 내용은 크게 ‘시문연구(時文研究)’, ‘어학란(語學欄)’, ‘문예란(文藝欄)’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다른 회화 책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책의 이와 같은 구성은 마치 중국어를 활용한 문장을 유형별로 보여주고자 한 듯하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김정탁의 중국어 학습서는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또 심도 있는 연구가 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새로운 시각으로 김정탁의 중국어 학습서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그의 저서 중 『중국어(1)』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중국어발음해석』과 비교하여 그의 중국어 한글 표기 체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동일시기에 출간된 중국어 교과서의 한글 표기 체계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2. 우암 김경탁과 그의 저서

2.1. 우암 김경탁

‘우암 김경탁 선생은 경로 이상은(1905~1976) 선생과 더불어 해방 후 한국의 현대 동양철학을 개척한 학문 1세대이다.’(이승환 2006:69) 김경탁 선생의 호는 우암(愚菴), 필명은 석금(石琴), 당호는 취영암(聚英庵)이다. 한국공자학회 편(2006:143~144)의 김경탁 생애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연대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김경탁은 1919년 한학 선생을 따라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1928년 도쿄의 일본대학 전문부 예술과에 입학하였다. 1931년 북경 중국대학 철학교육과에 입학하여 1934년에 졸업하였다. 1935년 도쿄의 릿교대학(立教大學) 종교연구과에 입학하였고, 1936년 도쿄의 와세다(早稻田大學)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1938년 경성상업실천학교, 봉천남만공업학교, 배재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고, 연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에 출강하였다. 1949년에는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취임하여 중국철학을 가르쳤고,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에도 출강하였다. 윤사순(2006:7)은 『김경탁 선생 100주기에 띄우는 글』에서 ‘이렇게 언행에 흐르러짐이 조금도 없는 데서, 어려서부터 한학을 익힌 풍모를 여실히 드러내는 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만 격식에 고루할 정도로 억매이지 않는 태도를 때때로 보여, 노장철학의 영향에서 받은 자유로움의 맛을 깨우친 융통성을 겸비한 인상을 풍기는 점이 있었다. 사투리가 별로 섞이지 않은 어투라든가 희귀한 한문 문자나 문장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데서, 선행이 따분한 한학자에 머물지 않은 개화된 인물임이 은연중 드러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고려대학 강사시절부터 가르치던 중국어를 비롯하여, 전공인 노장철학과 중국철학, 한국사상사 등이 있었다. 이 강의들은 모두 기존의 교재가 없던 터에 실로 개척자 정신으로 임하여야 했던 과목들이었다.’고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김경탁의 개척자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중국어(1)』과 『중국어발음해석』이 이런 정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서로는 『중국철학개론』 등의 철학저서, 『문화학개론』 등 번역서, 그리고 『대학』·『중용』·『논어』·『맹자』·『중용』·『주역』, 『노자』·『열자』·『장자』 등 유교번역고전이 있다. 그 외 김경탁은 한문 저서를 단계별로 출간하였는데, 『초등한문독본』, 『중등한문독본』, 『고등한문독본』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경탁은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한문과 중국어 실력 또한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철학 관련 저서 외에도 다수의 한문 교재, 중국어 어학 교재를 편찬하였다. 특히 잡지 형태의 『중국어(1)』의 출간은 그가 중국어의 다방면의 지식을 신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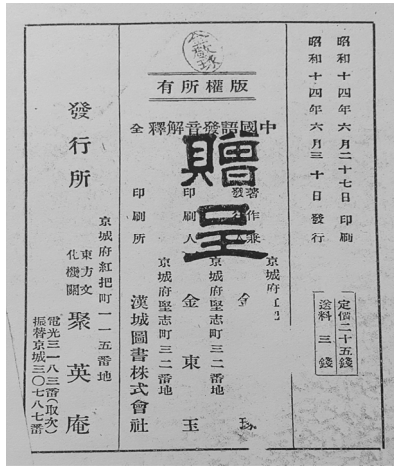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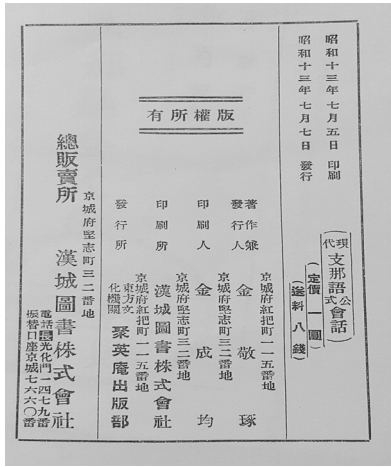
2.2. 김경탁의 중국어 학습서

김경탁 선생의 중국어 학습서를 중심으로 그의 업적에 대해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아래 표는 한국공자학회 편(2006:144~149)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 1] 김경탁의 중국어 학습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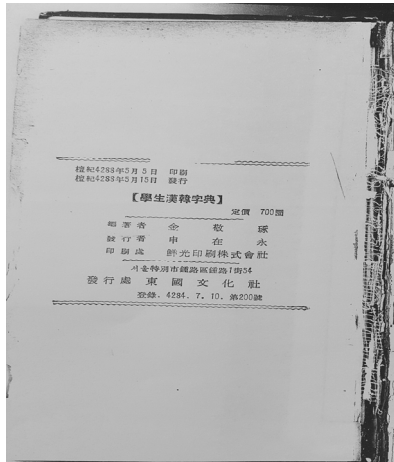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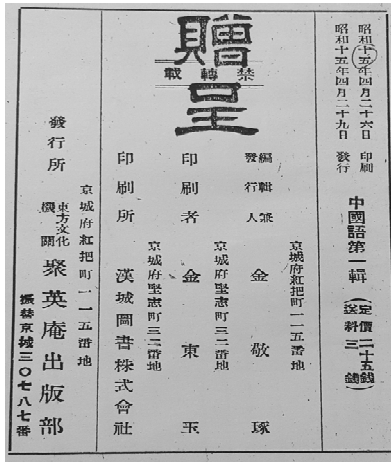
	출판년도	도서명	출판사	소장처	쪽
1	1938	『現代支那語公式會話』	聚英庵	동국대학교	235
2	1939	『中國語發音解釋』	聚英庵	연세대학교	34
3	1940	『中國語(第1輯)』	聚英庵	연세대학교	40
4	1955	『(學生)漢韓字典』	東國文化社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376

서지 사항은 아래 [그림 1~4]와 같다. [그림 1]은 『현대지나어공식회화』의 판권지이고, [그림 2]는 『중국어발음해석』의 판권지이다. [그림 3]은 『중국어(1)』의 판권지이고, [그림 4]는 『학생한한사전』의 판권지이다.



[그림 1] 『현대지나어공식회화』의 판권지

[그림 2] 『중국어발음해석』의 판권지



[그림 3] 『중국어(1)』의 판권지

[그림 4] 『학생한한사전』의 판권지

1번 도서 『현대지나어공식회화』의 서지사항을 보면 이 책은 경성에서 김정택이 저술하고 베이징에서 류쥘저우(劉作舟)¹⁾가 교열한 중국어 회화서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1938년에 인쇄 및 발행하였다. 저작 겸 발행인은 김정택이고, 발행소는 취영암출판부이다. 목차를 보면 서(序), 예언, 목차, 본문 순으로 총 235쪽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택은 예언에서 ‘상·중·하 3편으로 나누고 중요한 동사, 조동사, 조사, 부사 및 기타 감탄사 등을 망라한 기초공식을 선보였다. 또 매 마디마다 해석 부호 (1), (2), (3) 등을 사용하여 독자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발음은 베이징에서 저자와 같은 대학을 나오고 동경 와세다대학원에서 외교를 연구하는 베이징에서 태어난 류쥘저우가 직접 듣고 기록하였다. 또 예전의 부호식 발음을 사용하지 않고 순 가나(假名)로 표기하였다.’고 밝혔다. 본문의 상단에는 한자를 쓰고 한자 오른쪽에 일본어로 발음 표기를 하고, 하단에는 일본어로 뜻풀이를 하였다. 먼저 매 과마다 단어를 나열하고, 이어서 문장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아래 3번 도서 『중국어(1)』에 수록된 『현대중국어공식회화(1)』 부분은 한글로 발음을 적었지만 그가 저술한 『현대지나어공식회화』는 일본어로 발음을 적었다. 비록 이름은 비슷하지만 동일한 내용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번 도서 『중국어발음해석』의 서지사항을 보면 이 책은 1939년에 저작 겸 발행인 김정택이 취영암에서 발행한 중국어 음성학 소책자로 총 34쪽이다. 목차를 보면 서언에 이어 제1장은 주음부호(注音符)에 대한 설명으로, 자음, 모음, 결합모음 순으로 설명하였다. 제2장은 성조(聲調)에 대한 설명으로 고대인의 사성(四聲) 해석, 현대인의 사성 해석, 조선어 예의 사성 해석, 음파로 본 사성 해석, 음악으로 본 사성 해석, 사성의 부호, 사성의 변화, 발음의 변화, 악센트 등 순으로 설명하였다. 29쪽에는 결론을 쓰고, 부록에는 ‘중국어발음전표(中國語發音全表)’를 수록하였다.

1) 본 문서의 중국어 인명, 지명 등 표기법은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른다.

3번 도서 『중국어(1)』의 서지사항을 보면 이 잡지는 총 40쪽으로 1940년에 인쇄 및 발행하였고, 편집 겸 발행인은 김경탁임을 알 수 있다. 발행소는 동방문화기관(東方文化機關)인 취영암출판부이다. 목차를 보면 표제는 진커페이(金克培) 선생이 하였다. 목차 1쪽에 이어 권두사(卷頭言) 1쪽이 있다. 권두사에는 ‘말은 소리에서 나오고, 소리는 힘에서 나오고, 힘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생명에서 나온다. 생명은 공(空)이면서 색(色)이오, 색(色)이면서 공(空)이다. 이것을 걷어 들이면 한품 안에 안을 수 있고, 떼어 놓으면 온 우주에도 가득 찰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은 말의 근원이 된다.’²⁾고 하였다. 김경탁은 철학자답게 철학적으로 ‘생명은 말의 근원’이라고 말하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 나오는 ‘황국신민의 선서문’ 1쪽과 ‘만주국국가’ 2쪽은 시대적 색채가 짙은 내용이다. ‘만주국국가’는 상단에 한자를 쓰고 오른쪽에 한글 발음 표기를 하고 하단에는 한글 뜻풀이를 하였고, 마지막 주석에 단어 해석을 넣었다. 시문(時文)연구에는 「쑨원 탄신 기념일 왕푸 발표성명(孫文誕辰記念日汪復發表聲名)」, 「소사기(小事記)」, 「청첩(請貼)」을 수록하였다. 어학란에는 「중국어도해(圖解)제1도」, 「현대중국어공식회화(現代中國語公式會話)1」, 「중국어작문(1~5)」, 「중간노걸대해석(重刊老乞大解釋)」,³⁾ 「중국어천자문」, 「중국어성서해석(聖書解釋)」,⁴⁾ 「중국어어법강요」, 「중국어교과서해석(11)」 등 8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문예란에서는 세빙신(謝冰心)의 시 「시의 여신」,⁵⁾ 베이씨(北瑟)의 「야행(夜行)」,⁶⁾ 류샤오웨이(劉小惠)의 「심청전」,⁷⁾ 장쩌즈(張則之)의 베이징 가

2)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어(1)』과 『중국어발음해석』에서 인용한 부분은 현대국어 맞춤법에 맞게 옳갠음을 여기에 밝힌다.

3) 조선시기 중국어 학습서인 「중간노걸대」의 일부를 수록하고 한글 표기를 하였다.

4) 성경의 내용을 잡지에 넣은 것은 그가 1935년 도쿄의 릿교대학에서 종교연구과에 입학한 경력과 관련되어 보인다.

5) 시인이 1921년에 발표한 시로 후에 시집 『春水』에 수록되었다. 『중국어(1)』에 수록할 때 상단에는 원문, 하단에는 번역문을 실었고, 원문에는 한글 발음 표기를 달고, 원문 아래에 주석을 달고, 일부 단어의 한글 뜻풀이를 하였다.

요(歌謠) 『장아주머니(張大嫂)』,⁸⁾ 그리고 취영암인이 기록한 『베이징유학 일기』를 수록하였다. 김경탁의 당호가 취영암인 것으로 보아 여기서 취영암인은 김경탁 자신을 말하는 것 같다.

동일시기 이상은의 『최신화어교과서(最新華語教科書)』(1940)를 보면 주음부호로 중국어 발음 표기를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김경탁은 한글로 중국어의 발음을 표기하였다. 이는 잡지 특성상 독자들이 쉽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같다.

4번 도서 『학생한자사전(學生漢韓字典)』의 서지사항을 보면 이 자전은 1955년에 김경탁이 편저한 한자사전으로 총 376쪽이다. 책 앞에 편찬 동기에 대해 ‘1. 본 자전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용으로 편찬하였음. 2. 글자 수는 약 5000여 자로 하고, 그 밖의 벽자(僻字)는 다 생략하였음. 3. 본 사전의 특색은 우리말로 친절하게 해석하였을 뿐 아니라 매 자마다 품사를 기입하고 또 예를 들었음. 4. 국어사전과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어미에는 ‘다’를 붙이기로 하였음.’이라고 설명하였다.

3. 김경탁의 중국어 한글 표기

필자는 우선 김경탁이 편찬한 『중국어(1)』에 수록된 한글 표기 예들을 모아 중국어 성모(聲母)와 운모(韻母)로 나누어 표에 정리하였다. 이렇게

-
- 6) 민국 28년 11월 16일 실보(實報)에 실린 시이다. 『중국어(1)』에 수록할 때 원문에 한글 발음 표기를 달고, 원문 아래에 시의 의역(意譯)본과 직역(直譯)본이 있고, 마지막에 ‘뜻(字意)’ 즉 일부 단어의 한글 뜻풀이가 있다.
 - 7) 원문에 한글 발음 표기를 달았다. 그리고 취영암인의 번역문, 뜻풀이를 첨부하였다.
 - 8) 이 가요는 민국 21년(1932년)에 출판한 『한영대조북평가요(韓英對照北平歌謠)』(총 428쪽)에 수록되었다. 『중국어(1)』에는 한글 번역문 외에도 영문 번역문을 실었다. 영문 번역자는 Kinchen Johnson인데 이는 저자 장쩌즈(張則之)의 영문이름으로 그는 당시 국립북경사범대학의 교원이었다. 이 책에는 214수의 옛 북평의 동요를 수록하였다.

정리하여 분석해낸 중국어 한글 표기 자모는 실제 활용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과 김정탁이 『중국어발음해석』에서 설정한 중국어 한글 표기 체계와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즉 규칙적으로 설정한 한글 표기 체계와 실제 활용된 한글 표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고자 한다. 아래 성모와 운모에 대한 설명은 『중국어발음해석』의 성모(4~7쪽), 운모(8~13쪽)를 참조하였다. 『중국어발음해석』(1939:2~3)에는 ‘민국 7년(1917)에 『교육부국어통일기획회(教育部國語統一籌備會)』에서 발표한 자모 수는 39자이었으나 같은 해 9월에 다시 ‘ㄱ’자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어 그 수의 합이 40자이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사용되는 글자 수는 37자뿐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한글 표기 자모는 표준중국어 성모를 기준으로 해당 예자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아래는 각 성모에 해당된 예자 및 한글표기이다. 도표 안에는 중국어 한글표기를 ‘역음(譯音)’이라고 약칭하였다. 그리고 중국어 음성학 용어는 중국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중국에서 지칭하는 용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필자는 김정탁의 중국어 한글 표기 체계를 고찰하기 위해 동일시기 즉 제3, 4차 조선교육령시기인 1938년~1945년에 출간한 문세영의 『지나어대해(支那語大海)』(1938)와 장지영의 『중국어회화전서(中國語會話全書)』(1939) 두 문헌과 비교하려고 한다. 『지나어대해』의 중국어 한글 표기는 옥소영(2009)을 참고하였고, 『중국어회화전서』의 중국어 한글 표기는 서미령(2015)을 참고하였음을 여기에 밝힌다.

3.1. 성모 한글 표기

아래 [표 2]~[표 7], 그리고 [표 9]~[표 11]에는 한어병음(병음으로 약칭), 국제음성기호(IPA), 『중국어(1)』의 한글 표기(역음1로 약칭), 『중국어(1)』의 예, 『중국어발음해석』의 한글 표기(역음2로 약칭), 주음부호(주음으로 약칭) 순으로 정리하였다. 중국어 한글 표기 자모는 / 안에 표기

하였고, 국제음성기호는 []안에 표기하였다. 『중국어발음해석』에서는 주음부호로 설명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표기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국제음성기호로 바꾸어 설명하였음을 여기서 밝힌다.

3.1.1. 순음(脣音)

중국어 순음의 한글 표기와 예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순음 성모의 한글 표기

병음	IPA	역음1	예	역음2	주음
b	[p]	/ㅃ/	把八(빠) 筆必逼(삐) 白(빼이) 倍北被(빼이) 保飽抱(뽤) 板半般(뽤) 便(뽤) 便邊(뽤) 謗(뽤) 並(뽤)	/ㄸ (뽤)/	ㄸ
		/ㅂ/	罷(바) 丕(부) 邊(벤)		
		/ㅍ/	悲(페이)		
p	[p ^h]	/ㅍ/	怕(파) 坡(포) 鋪(푸) 配(페이) 跑拋(포) 貧(핀) 朋(핑) 平(핑)	/ㅍ/	ㅍ
		/ㅃ/	迫(뽤)		
m	[m]	/ㅁ/	媽罵嗎麼(마) 麼(머) 慕睦(무) 買賣(마이) 每沒(메이) 帽(모) 滿慢饅(만) 門們(먼) 民(민) 綿麵(면) 孟蒙夢(명) 明(밍)	/ㅁ/	ㅁ
f	[f]	/ㅍ/	傅福俯佛婦(후) 飯(환) 方放倣(황) 封奉(형)	/ㅍ/	ㅍ

김정탁은 『중국어발음해석』(1939:2~3)에서 양순음(雙脣音) ‘[p], [p^h], [m] 이 세 자음은 두 입술로 발음하는 것인데, [p]음은 한글의 /ㄸ/, [p^h]음은 /ㅍ/, [m]음은 /ㅁ/와 같음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고 하였다. [표 2]를 보면 실제 『중국어(1)』에는 [p]를 /ㅃ/ 혹은 /ㄸ/로 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p]를 /ㅍ/으로 표기한 경우는 ‘悲’ 하나뿐으로 ‘非’ 발음과 혼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p^h]는 대체로 /ㅍ/으로 표기하였다. 예외로 ‘迫’을 /ㅃ/로 표기한 것은 ‘白’자의 발음과 혼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m]

성모는 모두 /ㄱ/로 표기하여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어발음해석』(1939:4)에서 순치음(脣齒音) ‘[f]음은 윗니 끝과 아랫입술로 발음하는 것인데 윗니 끝을 아랫입술에 가볍게 대어 마찰하여 나오는 음이다. 발음할 때에 좀 가볍게 하여 성대가 진동되지 않게 되면 [f]음이 된다. 즉 [f]음은 영어의 F, 한글의 /ㅍ/ 아래 후음(喉音) /ㅇ/을 연서(連書)한 순경음(脣輕音) /ㅍ/와 같다.’고 하였다. 표 2를 보면 이 음은 『중국어(1)』에서 모두 /ㅍ/으로 표기하여 일치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2. 설첨음(舌尖音)

중국어 설첨음의 한글 표기와 예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설첨음 성모의 한글 표기

병음	IPA	역음1	예	역음2	주음
d	[t]	/ㄸ/	大打(따) 德(떠) 都獨豆肚(뚜) 地的遞(띠) 帶戴(따이) 到道(따) 豆(뚜) 但(뎐) 斷(뎐) 當(땅) 冬動東(똥) 頂(뎡)	/ㄸ (ㄸ)/	ㄸ
		/ㄸ/	得(더) 的帝底弟(디) 多(뉘) 的(디) 爹(데) 對(뉘이) 店(뎐) 道(노) 等(뎡)		
t	[tʰ]	/ㄷ/	他她(타) 徒士吐(투) 铁(테) 太(타이) 調跳(타) 頭(투) 天(텐) 天(텐) 堂(탕) 同慟冬(통) 騰(팅) 聽停(팅)	/ㄷ/	ㄷ
n	[n]	/ㄴ/	那(나) 呢你(니) 女(뉴) 捏(네) 柰奶(나이) 內(네이) 烏(노) 南(난) 念年(넌) 能(닝) 凝(닝)	/ㄴ/	ㄴ
l	[l]	/ㄹ/	了(랴) 樂(려) 露路(뤄) 立禮李裏離麗(려) 律呂(뤼) 列(려) 落(뤄) 來(라이) 老(랴) 料了撩(랴) 流留(뤼) 論(룬) 憐簾(롰) 亮量(량)	/ㄹ/	ㄹ
		/ㄹ/	老(랴)		

『중국어발음해석』(1939:5)에서 설첨음 ‘[t], [tʰ], [n], [l] 이 네 자음은 혀끝으로 발음하는 것인데, [t]음은 한글의 /ㄸ/, [tʰ]음은 /ㄷ/, [n]음은 /ㄴ/

와 같고, [l]음은 /ㄹ/보다 강(重)하여 혀끝을 잇몸(齒齦)에 대인 다음에 입김을 먼저 혀 양쪽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영어의 L자 음과 같고 한글로는 /ㄹ/의 된소리라고 할 수 있음으로 어울려 써서 /ㄹㄹ/로 쓰기로 한다.’고 하였다. [표 3]을 보면 『중국어(1)』에서 [t]를 /ㄷ/ 혹은 /ㄸ/로 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음들을 대체로 『중국어발음해석』에서 설정한 대로 표기하였다. [l]를 /ㄹ/로 표기한 예는 ‘老’뿐인데, /ㄹㄹ/로도 표기한 것으로 보아 오기(誤記)로 보인다.

3.1.3. 설근음(舌根音)

중국어 설근음의 한글 표기와 예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설근음 성모의 한글 표기

병음	IPA	역음1	예	역음2	주음
g	[k]	/ㄱ/	歌個哥(꺼) 古故(꾸) 果(꺠) 給(계이) 高(좌) 乾趕感(간) 跟(건) 官(관) 崗剛(강) 公宮工 (궁) 光(광)	/ㄱ (ㄱ)/	ㄱ
		/ㄱ/	過國(꺠)		
		/ㄱ/	各(커)		
k	[k ^h]	/ㅋ/	可課渴(커) 苦(쿠) 岡(꺠) 考(좌) 口(꺠) 開 (카이) 快(꺠이) 看(간) 炕(강) 空(꺠)	/ㅋ/	ㅋ
		/ㄱ/	岷(꺠)		
h	[h]	/ㅎ/	何和(허) 忽(후) 化話花(화) 活(꺠) 還孩(하이) 黑(헤) 坏(꺠이) 毀(꺠이) 號好(호) 後候(후) 寒(한) 很(헨) 歡喚(환) 洪(홍) 黃荒恍(황)	/ㅎ/	ㅍ

『중국어발음해석』(1939:5-6)에서 설근음 [k], [k^h], [h]음은 후설(後舌)로 발음하는 것인데 [k]음은 한글의 /ㄱ/, [k^h]음은 /ㅋ/와 같고, [h]음은 한글의 /ㅎ/와 같다.’고 하였다. [표 4]를 보면 [k]를 /ㄱ/ 혹은 /ㄱ/로 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음들을 대체로 『중국어발음해석』에서 설정한 대로

표기하였다. [k]를 /ㄱ/로 표기한 예는 ‘各’뿐으로 /꺼/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kʰ]를 /ㄲ/로 표기한 예는 ‘峴’뿐으로 /쿤/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3.1.4. 설면음(舌面音)

중국어 설면음의 한글 표기와 예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설면음 성모의 한글 표기

병음	IPA	역음1	예	역음2	주음
j	[tɕ]	/ㅈ/	家加(자) 近今金進(진) 界結芥擧(제) 京經靜(정), 幾既飢寂際(지) 覺(궈) 巨句(궈) 角叫教(조) 就(주) 見劍(젠) 講薑(장)	/ㅈ/	ㄴ
q	[tɕʰ]	/ㅊ/	齊起妻(치) 去(취) 却闕(궈) 橋悄(초) 求秋仇(취) 親(친) 千鉛前(첸) 青淸頃淸(칭)	/ㅊ/	ㄱ
x	[ɕ]	/ㅈ/	下遐瞎(샤) 喜蓆膝西(씨) 須虛許恤(쑤) 寫(씨) 些(씨) 學(궈) 學(궈) 學小(소) 訓(쑤) 先鮮現(셴) 先鮮(셴) 新(신) 想(쌍) 行幸(쌍)	/ㅈ/	ㅈ
		/ㅅ/	心(신) 修宿(수) 玄(환)		

『중국어발음해석』(1939:6)에서 설면음 ‘[tɕ], [tɕʰ], [ɕ]’은 혀끝 뒷면을 앞 치근(齒根) 뒷면의 경구개에 대이는 것이니 읽을 때에 [tɕ]음은 /지/, [tɕʰ]음은 /치/, [ɕ]음은 /시/로 읽는다.’고 하였다. [표 5]를 보면 [ɕ]를 /ㅈ/ 혹은 /ㅅ/로 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음들을 대체로 『중국어발음해석』에서 설정한 대로 표기하였다.

3.1.5. 설첨후음(舌尖後音)

중국어 설첨후음(권설음) 성모의 한글 표기 예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설첨후음 성모의 한글 표기

병음	IPA	역음1	예	역음2	주음
zh	[tʂ]	/ʌ̃/	這者着(ᄃᆞ) 珠住(ᄃᆞ) 只治之紙知致止值(ᄃᆞ) 着(ᄃᆞ) 摘(ᄃᆞ이) 洲宙(ᄃᆞ) 站(ᄃᆞ) 珍真(ᄃᆞ) 張(ᄃᆞ) (ᄃᆞ) 重中(ᄃᆞ)	/ʌ̃/	ㅈ
ch	[tʂʰ]	/ʌ̃ʰ/	刹(ᄃᆞ) 初出(ᄃᆞ) 遲吃喫(ᄃᆞ) 吹(ᄃᆞ이) 朝(ᄃᆞ) 愁(ᄃᆞ) 晨辰(ᄃᆞ) 村(ᄃᆞ) 昌唱長(ᄃᆞ) 成城稱承 程(ᄃᆞ) 蟲(ᄃᆞ) 窓長(ᄃᆞ)	/ʌ̃ʰ/	ㅊ
sh	[ʂ]	/ʌ̃/	甚(ᄃᆞ) 書暑樹數(ᄃᆞ) 是十世時師詩石詩實視 世事氏(ᄃᆞ) 誰水睡(ᄃᆞ이) 說(ᄃᆞ) 少(ᄃᆞ) 受手 收(ᄃᆞ) 山(ᄃᆞ) 身深神沈(ᄃᆞ) 尚上賞(ᄃᆞ) 生牲 聲(ᄃᆞ) 霜(ᄃᆞ)	/ʌ̃/	ㅅ
		/ㅅ/	使(ᄃᆞ)		
r	[ʐ]	/ʌ̃/	如柔辱(ᄃᆞ) 日(ᄃᆞ) 弱(ᄃᆞ) 若(ᄃᆞ) 然(ᄃᆞ) 人仁 (ᄃᆞ) 閏(ᄃᆞ) 讓(ᄃᆞ)	/ʌ̃/	ㄹ
		/ㄹ/	然란		
		/ʌ̃/	容(ᄃᆞ)		

『중국어발음해석』(1939:6~7)에서 설첨후음 ‘[tʂ], [tʂʰ], [ʂ], [ʐ] 이 네 자음은 구칭(舊稱) 정치음(正齒音)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아래윗니를 가지런히 대이고 혀(舌葉)를 올려 경구개의 앞부분과 같이 마찰이 되어 나오는 소리이다. 쉽게 말하면 먼저 혀바닥을 활집같이 뒤로 구부러가지고 한글의 /ㅈ/, /ㅊ/, /ㅅ/, /ㄹ/ 등 음을 발음하면 조금도 틀림없이 된다. /ㅈ/, /ㅊ/, /ㅅ/, /ㄹ/ 네 글자의 좌측에 /ʌ̃/을 붙인 것은 권설음의 부호를 표시한 것이다. [ʐ]음은 중국 북방어로 영어의 R과 같고 남방어로는 불어 J와 같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권설음의 조음방법과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표 6]을 보면 [ʂ]를 /ㅅ/로 표기한 예는 ‘使’뿐이다. [ʐ]를 /ㄹ/로 표기한 예는 ‘然’뿐이고, /ʌ̃/으로 표기한 예는 ‘容’뿐이다.

3.1.6. 설첨전음(舌尖前音)과 영성모(零聲母)

중국어 설첨전음 성모와 영성모의 한글 표기 예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설첨전음 성모의 한글 표기

병음	IPA	역음1	예	역음2	주음
z	[ts]	/쯔/	則戾怎(찌) 足(쑤) 自子(쯔) 在再(짜이) 最(궤이) 走(쑤) 昨作做坐(궤) 早造(짚) 怎(쩐) 縱(쑤)	/쯔/	ㄗ
		/쯔/	座(궤) 造(짚)		
c	[ts ^h]	/쯔/	此(쯔+一) 才纔菜(쯔+卜 이) 藏(쯔+ㄱ), 曾(쯔+ㄱ) 從(쯔+ㄱ)	/쯔/	ㄘ
		/쯔/	賜(쓰)		
		/쯔/	草(싼)		
s	[s]	/쓰/	思寺死(쓰) 穌蘇訴(쑤) 所鎖(쑤) 歲(궤이) 嫂(싼) 三(싼) 頌宋(송)	/쓰/	ㄝ
		/쓰/	虽(궤이) 宿(쑤)		
영성모	[Ø]	/ㅇ/	啊呵(아) 呀(야) 義已一意以易遺(이) 愛哀 唉(아이) 外(와이) 也夜耶野(예) 要遙(얀) 有憂由友又(우) 安(안) 因(인) 陽樣仰養(양) 用(용) 盈應迎(잉) 兒二而(얼) 無屋(우) 我(워) 外(와이) 爲慰微(궤이) 溫呵(운) 萬玩(완) 王往望萬(왕) 宇與語餘兩玉 欲躡(위) 怨遠園院願(완) 月(궤) 雲(윈) 溫蘊(윈)	-	-

『중국어발음해석』(1939:7)에서 설첨전음 ‘[ts], [ts^h], [s] 이 세 자음은 구칭(舊稱) 치두음(齒頭音)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혀끝을 반듯이 펴 앞니 후면(門齒後面)에 대이고 혀 양측은 구개(口蓋)쪽에 가까이 하여 발음하는 음이다. 쉽게 말하면 혀끝을 반듯이 앞으로 펴 앞니에 대여가지고 한글의 /쯔/, /쯔/, /쓰/의 세 개의 음을 발음하면 역시 조금도 틀림없다. [ts^h]

음을 한글로 /ㄷ/로 표기한 것은 /ㅌ/보다도 더 강한 것을 선보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표 7]을 보면 [s]를 /ㅅ/ 혹은 /ㅆ/로 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음들을 대체로 『중국어발음해석』에서 설정한 대로 표기하였다. [ts^h]를 /ㅆ/로 표기한 것은 ‘賜’ 하나뿐이고, [ts^h]를 /ㄷ/로 표기한 것은 ‘草’ 하나뿐이다. 『중국어(1)』(1940)에서 중국어 영성모는 대체로 /o/로 표기하였다. 예외로 ‘萬一’을 /왕이/로 표기한 예자가 있다.

이상 중국어의 성모의 한글 표기 체계를 살펴보았다. 김정택(1939:30)은 ‘중국어 발음은 로마자로 적는데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만국음표(萬國音標)요 또 하나는 웨이드식이다. 그러나 한글 음표로 적은 것은 아마 본서가 처음이라고 할 것이다. 한글 /ㄱ/자를 로마자 ‘k’로 쓸 것이나 ‘g’로 쓸 것 이나하는 의논도 아직 일치가 되지 못한 이때에 있어서 한글 음으로 중국 자모를 쓰는 것은 너무나 당돌하다고 할지는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글 음으로 중국의 자모를 표기하는 데 몇 가지 어려운 음의 변화 즉 (一) 순치음(脣齒音); (二) 권설음(後舌葉音); (三) 설첨전음(前舌葉音); (四) 권설모음이 있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었다.

처음에는 다 한글 문자 좌측에 /ㅎ/를 붙여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음성학 이론상으로 보아 의문을 일으킨다. 이상에서 세 번째는 한글 된소리의 이론으로 보아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의문을 일으킨다. 그래서 나는 다시 우리 한글 학계에 태두인 최현배 씨를 3번 방문하여 그의 지시를 받은 결과 [ts]/ㅆ/, [ts^h]/ㄷ/, [s]/ㅅ/는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적기로 하였다. [f]는 /ㅍ/, /ㅍ/ 아래에 순경음(脣輕音) /o/을 붙인 것이요. [ts]는 /ㄷ/, [ts^h]는 /ㄷ/로, [s]는 /ㅅ/으로, [z]는 /ㄹ/으로 하였는데 그 외의 것은 다 글자 좌측에 /o/를 붙여 권설음을 표하는 부호로 한 것이다. [ㄷ]은 /어+ㄷ/와 같다.

이상 글을 읽어 보면 그가 한글 표기 체계에 대해 많은 심혈을 기울였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현배에게 조언을 받은 부분을 보아 최현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현배는 『우리말본』(1971:71)에서 ‘또, 나는 위의 열다섯 홀닿소리 밖에 /ㅃ/, /ㅆ/, /ㅍ/, /ㅍ/, /ㅍ/의 다섯 소리를 인정함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ㅆ/과 /ㅃ/은 배달말과 외국말을 적기에 다 필요하며, /ㅍ/, /ㅍ/, /ㅍ/는 외국말을 적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ㅃ/, /ㅍ/을 보류한 것은 최현배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한 것 같다.

김경탁의 중국어 성모 한글 표기 체계에 특징을 동일시기에 출간된 『지나어대해』(1938), 『중국어회화전서』(1939)의 한글 표기와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지나어대해』의 성모 한글 표기 체계는 옥소영(2008:91~112, 146)을 참조하였다. 『중국어회화전서』의 성모 한글 표기 체계는 서미령(2015:43~52)을 참조하였다. 본 논문의 한글 표기 통계방식과 옥소영(2008), 서미령(2015)의 한글 표기 통계방식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필자는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고자 예자가 5개 이상인 한글 표기는 모두 적고 출현 한자수를 괄호 안에 적었다. 예자가 5개 이하인 한글 표기는 해당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운모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표 8] 성모 한글 표기 비교

조음위치	병음	『지나어대해』	『중국어회화전서』	『중국어(1)』
양순음	b	/ㅃ/(62)	/ㅃ/(54), /ㅃ/(37)	/ㅃ/(20)
	p	/ㅍ/	/ㅍ/	/ㅍ/
	m	/ㅍ/	/ㅍ/	/ㅍ/
순치음	f	/ㅆ/	/ㅍ/	/ㅍ/
설첨음	d	/ㄸ/(61), /ㄸ/(13)	/ㄸ/(89) /ㄸ/(38)	/ㄸ/(22), /ㄸ/(12)
	t	/ㅌ/	/ㅌ/	/ㅌ/
	n	/ㄴ/	/ㄴ/	/ㄴ/
	l	/ㄹ/	/ㄹ/	/ㄹ/

조음위치	병음	『지나어대해』	『중국어회화전서』	『중국어(1)』
설근음	g	/ㄱ/(91)	/ㄱ/(53), /ㄱ/(43)	/ㄱ/
	k	/ㅋ/	/ㅋ/	/ㅋ/
	h	/ㅎ/	/ㅎ/	/ㅎ/
설면음	j	/ㅈ/(103), /ㅉ/(38)	/ㅈ/	/ㅈ/
	q	/ㅊ/	/ㅊ/	/ㅊ/
	x	/ㅅ/(49), /ㅆ/(42)	/ㅅ/(77), /ㅆ/(19) /ㅅ ^ㅅ /(13)	/ㅅ/
설첨후음	zh	/ㄹ/(94), /ㅉ/(5)	/ㅉ/(99), /ㅉ/(23)	/ㄹ/
	ch	/ㄹ/(53), /ㅊ/(7)	/ㅊ/	/ㄹ/
	sh	/ㄹ/(91), /ㅅ/(7)	/ㄹ/	/ㄹ/
	r	/ㄹ/	/ㄹ/	/ㄹ/
설첨전음	z	/ㅉ/	/ㄹ/	/ㅉ/
	c	/ㅊ/	/ㄹ/	/ㅊ/
	s	/ㅅ/	/ㅅ/(41), /ㅅ/(5)	/ㅅ/
영성모	-	/ㅇ/	/ㅇ/	/ㅇ/

이상 내용을 비교하여 김경탁의 한글 표기 체계를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p^h], [t^h], [k^h]의 한글 표기: 김경탁과 문세영은 [p^h]를 주로 /ㅍ/로 표기하였고, 장지영은 /ㅍ/ 혹은 /ㅍ/로 표기하였다. [t^h]는 세 명 모두 /ㅊ/ 혹은 /ㅊ/로 표기하였다. 김경탁과 문세영은 [k^h]를 /ㄱ/로 표기하고 장지영은 /ㄱ/ 혹은 /ㄱ/로 표기하였다. 경음으로 표기한 예가 우세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옥소영(2008:91~92)은 ‘자음 /ㅍ/의 사용은 일제시기 중국어의 한글 표기법에서 보이는 큰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자음 /ㅍ/의 출현은 국어사의 측면에서 자음이 점점 강한 발음으로 변해 가는 경음화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지나어대해』는 교육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간행된 교재라는 특성상, 실제 음에 가깝게 표기하고자 노력한 저자의 흔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ʃ/, /ʌ/, /ɿ/, /ɛ/, /ɔ/, /ʊ/, /ɨ/ 등 25개이다. 『중국어발음해석』에도 ‘ㄱ, ㄷ, ㅌ’ 표기가 등장하지만 각 성모를 설명할 때는 /ㄱ/, /ㄷ/, /ㄹ/을 사용하였고, 부록의 발음전표에도 경음을 쓰지 않았다. 『중국어(1)』의 성모 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ㅇ+음소’의 형태 /ʌ/, /ʌ/, /ʌ/, /ʌ/를 사용하여 설첨후음을 표기하였고, 설면음은 /ɿ/, /ɿ/, /ㅌ(ㄴ)/로, 설첨전음은 /ㅌ/, /ʃ/, /ㅌ/로 표기하였다. ② [p]는 /ㅌ(ㄷ)/로, [t]는 /ㄷ(ㄷ)/로, [k]는 /ㄱ(ㄱ)/ 등 두 세트로 표기하였다. ③ [f]를 /ㅍ/로 표기하였다. ④ [l]는 /ㄹ/로 표기하였다.

3.2. 운모 한글 표기

3.2.1. 단운모(單韻母)

운모는 표준 중국어 단운모, 복운모, 부성운모, 결합모음 순으로 해당 예자를 정리하였다. 아래는 각 운모에 해당된 예자 및 한글 표기이다. 우선 단운모의 한글 표기와 예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단운모의 한글 표기

병음	IPA	역음1	예	역음2	주음
a	[a]	ㅏ	啊呵(아) 把八(빠) 罷(바) 怕(파) 妈骂吗(마) 大打(따) 他她(타) 那(나) 刹(샤)	ㅏ	ㄚ
e	[ɛ]	ㅓ	麼(머) 德(떠) 得(더) 樂(띠) 歌個哥(꺼) 可課 渴各(커) 何和(허) 甚(셰) 者着這 ¹⁰ (셰) 則尺 怎(찌)	ㅓ	ㄝ
		ㅑ	麼(마) 了(랴)		
		ㅓ	的(딕)		
i	[i]	ㅣ	義已一意以易遺(이) 筆必逼(삐) 地的遞(띠) 的帝底弟(디) 呢你(니) 立禮李裏離麗(리) 幾 既飢寂際己(지) 齊起妻(치) 喜蓆膝西(씨)	ㅣ	ㅣ

병음	IPA	역음1	예	역음2	주음
u	[u]	ㄊ	無屋(우) 不(부) 鋪(푸) 慕陸(무) 傅福俯佛婦(후) 都獨豆肚(두) 徒土吐(투) 露路(루) 古故(구) 苦(쿠) 忽(후) 珠住(주) 初出(추) 書暑樹數(수) 如柔辱(루) 足(주) 蘇訴(수)	ㄊ	×
ü	[y]	ㅍ	宇與語餘兩玉欲踴(위) 女(늬) 律呂(뤼) 巨句(쥬) 去(취) 須虛許恤(쥬)	ㅍ	ㄱ
-i	[ɿ]	ㄱ	只治之紙知致止值(으) 遲吃喫(으) 是十世時師詩石詩實視世事氏(으) 日(으)	、	-
		一	使(쓰)		
-i	[ɿ]	一	自子(쯔) 此(次天+一) 賜思寺死(쓰)	、	-
er	[ɛ]	ㄱ	兒二而(얼)	ㄱ+ ⁰²	

1) 단운모: 『중국어발음해석』(1939:8-9)에서는 ‘[i], [u], [y] 세 자는 자음이나 모음과 결합될 수 있다. 자음과 결합할 때에는 자음 뒤에 붙고 모음과 결합할 때에는 모음 앞에 붙는다. 또 단독으로 작용도 한다. 그런데 만일 세 자가 결합될 때에는 언제나 중간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아래 위에 두 글자를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이 세 자를 개모(介母)라고도 한다. 이상 발음법에 있어서는 한글의 /l/, /t/, /n/, /k/, /n/, /r/의 음과 같음으로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표 8]의 예외자 표기를 보자. ‘了’를 /찌/가 아니라 /찌/로 표기한 것에 대해 『중국어발음해석』(1939:27)에서는 ‘了자가 조사로 사용될 때에는 흔히 /찌/ 혹은 /찌/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到了’에서 ‘了’를 /찌/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麼’를 /마/로 표기한 것에 대해 『중국어발음해석』(1939:28)에서는 ‘麼자가 조사 嗎/마/로 통용되지 않고 다른 문자와 연속으로 나올 때에는 /머/로 변한다.’고 설명하였다. ‘的’은 주로 /디/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我

10) 김경탁은 ‘這/예, 那/나, 那/나-훤’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這(예)-位’는 ‘這(예)/位’; ‘那/나-位’는 ‘那(네이)/位’; ‘那/나-天’은 ‘那(나이)/天’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중국어(1)』에서는 해당 예문이 없다. ‘這一刹那’, ‘這般的’에서 모두 /예/로 표기하였다.

的, 我們的, 慢慢的’ 등이 있다. /띠/로 표기한 경우는 ‘李王家的’ 하나뿐이고, /딕/로 표기한 경우도 ‘溫和的’ 하나뿐이다. ‘使’를 /쓰/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이 없다. ‘使’자를 권설음이 아닌 평설로 발음하여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보여 진다. 『중국어(1)』에서 [ɿ]는 /-이/로 표기하고 [ɿ]는 /-이/로 표기하여 구분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중국어발음해석』에서는 별도의 해석이 없이 ‘, ’로 표기하였다.

2) 권설모음: 『중국어발음해석』(1939:11)에서 ‘이 흡은 혀끝을 감는 소리이니 자음 권설음(後舌葉音) [tʂ], [tʂʰ], [ʂ], [r]의 네 개 음과 같이 혀를 뒤로 감어가지고 한글 /얼/의 소리를 내면 된다. 단독으로 사용되는 글자이나 어떤 때에는 다른 글자 어미에도 붙게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兒子/얼쯔’, ‘女兒/뉴얼/’ 등이 있다. 『중국어발음해석』에서 /닐/이 아니라 /ㄱ+ㅇ/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3.4절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3.2.2. 복운모(複韻母)와 부성운모(附聲韻母)

중국어 복운모와 부성운모의 한글 표기와 예를 정리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복운모와 부성운모의 한글 표기

병음	IPA	역음1	예	역음2	주음
ai	[ai]	/ㅏㅣ/	愛哀唉(아이) 白(빠이) 買賣(마이) 帶戴(파이) 太(타이) 奈奶(나이) 來(라이) 開(카이) 還孩(하이) 摘(찌이) 在再(짜이) 才纔菜(스ㄷ아이)	/ㅏㅣ (H)/	ㄝ
ei	[ei]	/ㅓㅣ/	倍北被(베이) 悲(페이) 配(페이) 每沒(메이) 內(네이) 給(게이) 黑(헤이)	/ㅓㅣ (H)/	ㅝ
ao	[au]	/ㅓㅓ/	保飽抱(빠오) 跑拋(포오) 帽(모오) 道(도오) 到(도오) 老(로오) 老(로오) 高(고오) 考(코오) 號好(호오) 朝(초오) 少(쇼오) 造(조오) 早造(조오) 草(초오) 嫂(쇼오)	/ㅓㅓ/	ㅓ

병음	IPA	역음1	예	역음2	주음
ou	[ou]	/ㄹ/	豆(두) 頭(투) 口(구) 後候(후) 洲宙(주) 愁(주) 受手收(수) 走(주)	/ㄹ/	又
an	[an]	/ㄴ/	安(안) 板半般(반) 滿慢饅(만) 飯(반) 但(단) 南(난) 乾趕感(간) 看(칸) 寒(한) 站(잔) 山(산) 然(란) 然(연) 三(싼)	/ㄴ/	ㄱ
en	[ən]	/ㄴ/	門們(먼) 跟(겐) 很(흔) 珍真(연) 晨辰(연) 身深神沈(연) 人仁(연) 怎(젠)	/ㄴ/	ㄱ
		/ㄷ/	甚(여)		
ang	[aŋ]	/ㅇ/	謗(방) 方放傲(방) 當(팡) 堂(탕) 崗剛(강) 炕(강) 張(양) 昌唱(양) 尙上賞(양) 讓(양) 藏(藏+ㅇ)	/ㅇ/	ㄷ
eng	[əŋ]	/ㅇ/	朋(평) 孟蒙夢(명) 封奉(평) 等(등) 騰(등) 能(능) 成城稱承程(형) 生牲聲(형) 曾(曾+ㅇ)	/ㅇ/	ㄷ

『중국어발음해석』(1939:9~10)에서는 [ai], [ei], [au], [ou] 이 네 음은 두 음이 합성된 것이고, [ai]를 /ㄱ/로도 발음하고, [ei]를 /ㄷ/로도 발음한다. 부록 발음 표에서는 통속성에 따라 /ㄱ/로 표하였다. [au]는 /ㄴ/의 합성음이라기보다는 먼저 /ㄱ/음을 발음한 다음에 입모양만 /ㄴ/의 모양으로 하는 것이 완전한 음이 되지 않을까 한다. [ou]도 역시 그러하리라고 생각한다. [an], [ən], [aŋ], [əŋ] 이 네 음은 모음뿐만 아니라 끝소리에 자음을 띤 소리이니 즉 초성 모음과 종성 자음으로 된 모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인은 자음을 성(聲), 모음은 운(韻)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여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네 음은 종성(終聲)에 자음 즉 성(聲)을 부가하였다고 하여 부성모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발음을 설명치 않아도 이해하겠기에 생략하여둔다.’고 설명하였다. [표 10]을 보면 『중국어(1)』에서 [ai]는 /ㄱ/로, [ei]는 /ㄷ/로 표기한 것은 통속성에 따른 표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의 성, 운, 부성모음 등 개념을 설명하고 또 발음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기 쉽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네 발음의 전사는 비교적 쉬웠음을 알 수 있다.

[표 10]을 보면 ‘甚’을 /연/이 아니라 /여/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김정탁은 ‘麼자가 조사 嗎/마/로 통용되지 않고 다른 문자와 연이어 나올 때에는 /머/로 변한다. 예를 들면 ‘甚麼’를 /연마/로 발음하지 않고 /여머/로 발음한다. ‘怎麼’는 /연마/로 발음하지 않고 /여머/로 발음한다. 주의할 점은 ‘甚/연/, ‘怎/연/의 [n]음도 소실케 된다.’고 하였다. 『중국어(1)』의 예를 보면 ‘甚麼/여머/’, ‘怎麼/쩌머/’ ‘多麼/뒤머/’ 등이 있고, ‘怎配迎接你’에서는 ‘怎’을 /쩐/라고 표기하였고, ‘能到北京麼’에서는 ‘麼’를 /마/로 표기하였다.

3.2.3. 결합모음(結合韻母)

결합모음은 제치호(齊齒呼), 합구호(合口呼), 찰구호(撮口呼) 운모 순으로 한글 표기와 예를 정리하면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결합운모의 한글 표기

병음	IPA	역음1	예	역음2	주음
ia	[ia]	/ㅈㅏ/	呀(야) 家加(자) 下遐瞎(샤)	/ㅈㅏ/	一ㄚ
ie	[ie]	/ㅈㅔ/	也夜耶野(예) 捏(네) 列(레) 界結芥接(제) 些(셰)	/ㅈㅔ/	一ㅔ
		/ㅈㅖ/	铁(테) 寫(셰)		
iao	[iau]	/ㅈㅑ/	要遙(요) 調跳(톄) 鳥(뇨) 料了撩(랴) 角叫教(조) 橋梢(초) 學小(샤)	/ㅈㅑ/	一ㅑ
iou	[iou]	/ㅈㅓ/	有憂由友又(우) 流溜(류) 就(주) 求秋仇(취) 修(수) 宿(수)	/ㅈㅓ/	一ㅓ
ian	[ien]	/ㅈㅓ/	便邊(편) 綿麵(면) 店(덴) 天(텐) 念年(넌) 憐簾(편) 見劍(젠) 千鉛前(첸) 先鮮(셴)	/ㅈㅓ/	一ㅓ
			便邊(편) 边(벤) 先鮮現(셴)		
in	[in]	/ㅈㅓ/	因(인) 貧(핀) 民(민) 近今金進尽(진) 親(친) 新心(신)	/ㅈㅓ/	一ㅓ
iang	[iang]	/ㅈㅑ/	陽樣仰養(양) 亮量(량) 講薑(장) 想(상)	/ㅈㅑ/	一ㅑ

병음	IPA	역음1	예	역음2	주음
ing	[iŋ]	/ ㄱ /	盈應迎(잉) 並(병) 平(핑) 明(밍) 頂(뎡) 聽停(팅) 凝(닝) 京經靜(징) 青清頃請(칭) 行幸(씽)	/ ㄱ /	—ㄴ
ua	[ua]	/나/	化話花(화)	/나/	×Y
uo	[uo]	/거/	我(워) 多(뒤) 落(뤄) 國果(꺀) 過國(꺀) 鬪(꺀) 活(꺀) 着(꺀) 說(꺀) 若(꺀) 昨做 坐作(꺀) 所鎖(꺀)	/거/	×ㄷ
		/기/	弱(꺀)		
uai	[uai]	/나ㅣ/	外(와이) 快(꺀이) 坏(꺀이)	/나ㅣ (꺀)	×ㄸ
uei	[uei]	/꺀ㅣ/	爲慰微(꺀이) 對(꺀이) 毀(꺀이) 吹(꺀이) 水睡(꺀이) 最(꺀이) 歲(꺀이) 虽(꺀이)	/꺀ㅣ (ㄷ꺀)	×ㄷ
uan	[uan]	/꺀/	萬玩(완) 斷(뺀) 官(꺀) 歡喚(꺀)	/꺀/	×ㄸ
uen	[uən]	/꺀/	溫問(운) 論(룬) 岷(꾼) 村(꺀) 閨(꺀)	/꺀/ (꺀)	×ㄸ
ong	[uŋ]	/꺀/	冬動東(뺀) 同慟疼(뺀) 公宮工(꺀) 空(꺀) 洪(꺀) 重中(꺀) 蟲(꺀) 縱(꺀) 從(꺀+꺀) 頌宋(꺀)	/꺀/	×ㄴ
ueng	[uəŋ]	-	-	/꺀/	×ㄴ
uang	[uaŋ]	/꺀/	王往望(왕) 光(꺀) 黃荒恍(꺀) 窓長(꺀) 霜(꺀)	/꺀/	×ㄸ
üe	[yɛ]	/꺀/	月(꺀) 覺(꺀) 却闕(꺀) 學(꺀)	/꺀/	니ㅅ
		/꺀/	學(꺀)		
ün	[yn]	/꺀/	雲(윈) 訓(꺀)	/꺀/	니ㄸ
		/꺀/	蘊(윈)		
üan	[yen]	/꺀/	願怨遠園院(완) 玄(꺀)	/꺀/	니ㄸ
iong	[yŋ]	/꺀/	用(용)	/꺀/	니ㄴ

『중국어발음해석』(1939:12~13)에서는 ‘[ia]/아/, [ie]/예/, [iao]/요/, [iou]/유/, [ien]/엔/, [in]/인/, [ian]/양/, [in]/잉/ 이상 글자와 같이 [i]와 결합된 것을 제치호(齊齒音)이라고 한다. [ua]/와/, [uo]/워/, [uai]/와이/, [uei]/웨이/, [uan]/완/,

[uən]/운/, [uan]/왕/, [uən]/웅/ 이상 여덟 자와 같이 [u]의 결합된 것을 합구호라고 한다. [uai]는 /왜/, [uei]는 /우+이/, [uən]은 /윈/, [uen]은 /윙/으로도 발음할 때가 있다. [ye]/웨/, [yen]/웬/, [yn]/윈/, [yŋ]/윙/ 이상 네 글자와 같이 [y]와 결합된 것을 찰구호(입을 오무리는 소리)라고 한다.’고 하였다.

[표 11]을 보면 [iɛ]는 /케/로 표기한 것 외에도 /세/로 표기한 예가 두 개 있다. [iou]는 『중국발음해석』에서는 /ㅠ/로 설정하였으나 『중국어(1)』에서는 /구/으로 표기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탁은 별도의 설명이 없다. [ien]은 /켄/ 혹은 /겐/으로 표기하였다. ‘弱’을 /윽/로 표기한 것은 오기(誤記)로 보인다. ‘學’을 /췌/로 표기한 것은 /췌/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蘊’을 /윈/으로 표기한 것은 오기(誤記)로 보인다. 기타 결합운모는 『중국어 발음해석』에서 설정한 대로 표기하였다.

이상 중국어의 운모의 한글 표기 체계를 살펴보았다. 비록 『중국어발음해석』에서 설정한 한글 표기법과 바로 다음해에 출간한 『중국어(1)』에 표기한 한글 자모의 차이를 볼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원인은 지금으로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한글 표기 방법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고 1:1 적용하려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중국어(1)』이 후속 잡지가 출간되지 않아 다른 면모를 볼 수 없다. 김정탁의 중국어 성모 한글 표기 체계에 특징을 동일시기 중국어 교재의 한글 표기 체계와 비교하여 정리해보면 아래 [표 12]와 같다. 『지나어대해』의 운모 한글 표기 체계는 옥소영(2008:113~132)을 참조하였다. 『중국어회화전서』의 운모 한글 표기 체계는 서미령(2015:54~58)을 참조하였다.

[표 12] 운모 한글 표기 비교

	병음	『지나어대해』	『중국어회화전서』	『중국어(1)』
단운모	a	/ㅏ/	/ㅏ/	/ㅏ/
	o	/ㅑ/(10), /ㅑ/(10)	/ㅑ/	/ㅑ/
	e	/ㅓ/(10), /ㅓ/(8)	/ㅓ/	/ㅓ/

	병음	『지나어대해』	『중국어회화전서』	『중국어(1)』
단운모	i	/ㅣ/	/ㅣ/	/ㅣ/
	u	/ㅓ/	/ㅓ/	/ㅓ/
	ü	/ㅕ/	/ㅕ/(30), /기/(7)	/ㅕ/
	-i[ɿ]	/ㅡ/	/ㅡ/	/ㅡ/
	-i[ɨ]	/ㅣ/	/기/	/기/
	er	/ㄹ/	/ㄹ/	/ㄹ/
복운모	ai	/ㅐ/(50), /개/(7)	/ㅐ/	/ㅐㅣ/
	ei	/개/	/개/	/개ㅣ/
	ao	/ㅓ/(74), /ㅓ/(10)	/ㅓ/	/ㅓ/
	ou	/우/	/우/	/우/
부성운모	an	/ㄴ/	/ㄴ/	/ㄴ/
	en	/ㄴ/	/ㄴ/(23), /ㄴ/(12)	/ㄴ/
	ang	/ㅇ/	/ㅇ/	/ㅇ/
	eng	/ㅇ/(37), /ㅇ/(11)	/ㅇ/	/ㅇ/
결합운모	ia	/ㅑ/	/ㅑ/	/ㅑ/
	ie	/개/(24), /개/(9)	/개/	/개/
	iao	/ㅓ/	/ㅓ/	/ㅓ/
	iou	/우/	/우/	/우/
	ian	/ㄴ/(73), /ㄴ/(26)	/ㄴ/	/ㄴ/(17), /ㄴ/(6)
	in	/ㄴ/	/ㄴ/	/ㄴ/
	iang	/ㅇ/	/ㅇ/	/ㅇ/
	ing	/ㅇ/	/ㅇ/	/ㅇ/
	ua	/ㅑ/	/우/	/ㅑ/
	uo	/우/	/우/	/우/
	uai	/ㅑ/	/개/	/ㅑㅣ/
	uei	/개/	/개/	/개ㅣ/
	uan	/ㄴ/	/ㄴ/	/ㄴ/
	uen	/ㄴ/	/ㄴ/(29), /ㄴ/(6)	/ㄴ/
ong	/ㅇ/	/ㅇ/	/ㅇ/	

	병음	『지나어대해』	『중국어회화전서』	『중국어(1)』
결 합 운 모	ueng	-	/경/	/경/
	uang	/강/	/강/	/강/
	üe	/꺄/	/꺄/	/꺄/, /꺄/
	ün	/꺄/	/꺄/	/꺄/
	üan	/꺄/	/꺄/	/꺄/
	iong	/경/	/꺄/	/꺄/

이상 운모의 한글 표기를 비교하고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단모음 표기를 보면 [o], [ɤ], [y], [ɥ], [ɰ] 등의 표기가 다르다. 김정탁은 [o]를 /ㄴ/로 표기한 것과 달리 문세영은 /ㄱ/ 혹은 /ㅅ/로 표기하였고, 장지영은 /ㄱ/로 표기하였다. 김정탁과 장지영은 [ɤ]를 /ㄱ/로 표기하였고, 문세영은 /ㄱ/ 혹은 /ㅋ/로 표기하였다. 김정탁과 문세영은 [y]를 /꺄/로 표기하였고, 장지영은 /꺄/ 혹은 /ㄱ/로 표기하였다. 김정탁과 장지영은 [ɥ]를 주로 /ㄴ/로 표기하였고, 문세영은 /ㅣ/로 표기하였다. 김정탁은 『중국어발음해석』에서 [ɰ]를 /ㄱ+^ㄹ/로 표기하고 설정하였으나 『중국어(1)』에서는 /꺄/로 표기하였다.

2) 복운모 표기를 보면 [ai], [ei], [au], [ou]의 표기가 다르다. 김정탁은 [ai]는 /ㅏㅣ/로 표기하였고, 문세영은 /ㅏ/ 혹은 /꺄/로 표기하였고, 장지영은 /ㅏ/로 표기하였다. 김정탁은 [ei]를 /꺄ㅣ/로 표기하였고, 문세영과 장지영은 /꺄/로 표기하였다. 김정탁과 장지영은 [au]를 /ㅑ/로 표기하였고, 문세영은 /ㅑ/ 혹은 /ㅑ/로 표기하였다. 김정탁은 [ou]를 /ㅑ/로 표기하는데 문세영과 장지영은 /ㅑ/로 표기하였다.

3) 부성운모의 표기를 보면 [ən]과 [əŋ]의 표기가 다르다. 김정탁과 문세영은 [ən]을 /ㄴ/으로 표기하였고, 장지영은 /ㄴ/ 혹은 /ㄴ/으로 표기하였다. 김정탁과 장지영은 [əŋ]을 /꺄/으로 표기하였고, 문세영은 /꺄/ 혹은 /꺄/으로 표기하였다.

석』에서는 /ㄱ+⁰²/로 표기하였다.

3.3. 성조 표기

『중국어(1)』에 중국어 성조 방점 표시를 한 부분은 모두 세 곳인데, 『중국어 도해』의 단어, 『현대중국어공식회화』의 단어와 『중국어천자문』이다. 『중국어발음해석』에서는 중국어의 성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중국어발음해석』(1939:14)에서 김정탁은 ‘소리는 생명의 힘의 파동임으로 그 움직임에 따라 소리의 고저(高低), 강약(强弱), 장단(長短), 완급(緩急)의 차이를 내게 된다. 이러한 성조의 변화를 즉 평(平), 상(上), 거(去), 입(入)의 사성, 또는 평성(平聲)을 음평(陰平 혹은 上平), 양평(陽平 혹은 下平)으로 나누어 이 오성(五聲)이라고도 한다.’고 성조와 그 종류에 대해 설명하였다.

『중국어발음해석』(1939:14~15)에서는 성조의 정의 특징과 발음법에 대해 옛날 사람, 현대인, 조선인 등 세 부류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古人: 平聲 平道莫低昂, 上聲 高呼猛烈强, 去聲 分明哀遠道, 入聲 短促急收藏

現代人: (黎錦熙氏의 해석) 第一聲(陰平) ‘高而平, 始終一致’; 第二聲(陽平) ‘先低後高, 低暫高久’; 第三聲(上聲) ‘先低後高, 低久高暫’; 第四聲(去聲) ‘先高後低, 音向下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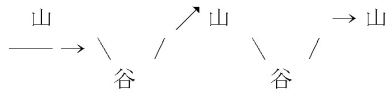
朝鮮人: 우리 조선말의 ‘네’를 끌어다 설명하면, ‘1성은 말머리와 말꼬리의 고저기복(高低抑物)이 없는 소리이니 예를 들면 남의 말을 듣고 긍정할 때에 ‘네. 그렇습니다’하는 ‘네’와 같고, 2성은 말꼬리를 아래서 위로 드는 소리이니 예를 들면 남의 말을 듣고 의문이 있을 때에 ‘네, 뭐어요’하는 ‘네’와 같고, 3성은 말을 길게 빼어 꼬리에 힘을 주는 소리이니 예를 들면 남의 말을 듣고 감탄할 때에 ‘네,

그렇구만요!’하는 ‘네’와 같고 4성은 말꼬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이니 예를 들면 남의 명령하는 말을 듣고 결정할 때에 ‘네, 그러겠습니다’하는 ‘네’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김경탁은 고대인들은 입성을 ‘평성의 1/2이나 1/3 혹은 강약만 있고 장단이 없는 점과 같은 소리이다.’라고 보고, 현대인은 거성을 ‘우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소리’로 보고, 입성은 ‘현대 중국어의 성조의 베이징 음에 근거된 것으로 매우 짧은(短促) 입성을 발음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것은 사용치 못하고 다른 사성(상평, 하평, 상성, 거성)으로 변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조선인에게 중국어 성조를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 엿볼 수 있다. 지금과 비슷하게 한국어의 적절한 예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발음해석』(1939:17~18)에서 음파로 본 성조와 음악으로 본 성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사성(四聲)을 생명의 연속적 음파로 보면 다음과 같은 선을 칠 수 있다. 1성은 기복(起伏) 즉 산골짜기(山谷)가 없는 음파이다. 3성은 산(山)에서 곡(谷), 곡(谷)에서 다시 산(山)으로 올라가는 음파이다. 4성은 산(山)에서 곡(谷)으로 흘러내려가는 음파이다. 2성은 곡(谷)에서 산(山)으로 올라가는 음파라고 할 수 있다.



사성의 정의를 다시 악보의 부호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성은 높은 ‘도’음으로 평평하고 높고, 2성은 중음(中音) ‘솔’에서 일어나서 펍 빨리 들어 고음(高音) ‘도’에 끝이니 그 꼬리의 높이가 1성과 같고, 3성은 저음(低音) ‘파’에서 다시 최저음(最低音) ‘미’로 좀 내려가서 잠깐 머물렀다가 ‘라’음으로 또 다시 올라가서 힘 있게 곧 끌고, 4성은 고음(高音) ‘라’에서 저음 ‘미’로 내려간다.

이상 내용을 보면 김정탁은 1성, 3성, 4성, 2성 순으로 음파로 본 성조의 특징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악보의 계 이름으로 성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성조 특징과 대체로 일치하다. 다만 4성의 끝 음이 높은 ‘도’에서 시작하지 않고 ‘라’에서 시작한다고 한 부분이 다소 다르지만 4성의 특징은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중국어발음해석』(1939:17~18)에서 김정탁은 ‘사성에 부호를 붙이는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자 위에 붙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자의 사각(四角)에 붙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문자 위에 붙일 때는 一聲(下平)은 ‘ˊ’로, 二聲(上平)은 ‘ˊˊ’로, 三聲(上聲)은 ‘ˊˊˊ’로, 四聲(去聲)은 ‘ˊˊˊˊ’를 붙인다. 문자의 사각에 붙일 경우 1성은 왼쪽 아래, 2성은 왼쪽 위, 3성은 오른쪽 위, 4성은 오른쪽 아래 글자에 橫書할 때에 쓰는 것으로 유기음(有氣音)일 때는 까만 점 ‘·’, 무기음(無氣音)일 때는 ‘◦’ 부호를 사용한다. 유기음은 중국 자모 중 [pʰ], [tʰ], [kʰ], [tɕʰ], [tɕʰ], [tɕʰ]의 여섯 개의 음을 가리키는 것이니 우리 한글의 /ㅎ/를 포함한 음 즉 /ㅍ/, /ㅌ/, /ㅋ/, /ㄷ/, /ㅊ/와 같은 음이다. 이 음은 모두 입김을 입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나 얇은 종이를 입에 대이면 움직인다. 무기음은 그와 반대인데 이상 여섯 자 이외의 음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사성 표기법, 그리고 유기음과 무기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중국어(1)』에 수록된 『중국어천자문』에는 유기음 표기를 한 예가 있다. 그 예를 옮겨보면 [tʰ] (天, 調, 騰), [tɕʰ] (秋, 闕), [tɕʰ] (成, 辰, 出, 稱), [tɕʰ] (藏, 菜) 등이 있다.

『중국어발음해석』(1939:21)에서는 성조 변화 다섯 가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1) 3성인 글자 두 개가 연이어 올 때에는 앞에 있는 글자가 2성으로 변한다(예: 老子 3성+3성 → 2성+3성).
- 2) 3성의 글자 세 개가 중첩될 때는 중간에 위치한 글자가 2성으로 변한다(예: 洗臉水 3성+3성+3성 → 3성+2성+3성).
- 3) 4성인 글자 앞에 ‘一, 七, 八, 不’ 등 글자가 있고 또 이 글자들이

힘주어 읽을 때(重念)에는 모두 2성으로 변한다(예: 一個 1성+4성 → 2성+4성; 七月 1성+4성 → 2성+4성; 八號 1성+4성 → 2성+4성; 不好¹¹⁾ 4성+4성 → 2성+4성).

4) 중첩해 읽는 단어에서 힘주어 읽을 때(重念) 뒤에 있는 글자는 몇 성이든지 모두 1성으로 변한다(예: 姐姐 3성+3성 → 3성+1성; 妹妹 4성+4성 → 3성+1성).

5) 품사(詞類) 아래 붙는 ‘子, 裏, 頭, 兒’ 등 글자는 모두 1성으로 변한다(예: 花子 1성+3성 → 1성+1성; 那裏 4성+3성 → 4성+1성; 上頭 4성+2성 → 4성+1성; 今兒 1성+2성 → 1성+1성).

6) 의성어를 나타내는 글자는 모두 1성으로 변한다(예: 배젓는 소리 ‘咿啞’, 데굴데굴 구는 소리 ‘咕嚕’, 고양이 소리 ‘咪’, 네하고 대답하는 소리 ‘唉唉’).

『중국어(1)』에 표기된 성조를 바탕으로 성조 변화의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조 표기 예가 적어서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세 번째 규칙을 적용한 예로는 ‘一張’이 있다. 다섯 번째 규칙을 적용한 예로는 ‘這兒’이 있다. 이외 현재 경성(輕聲)으로 발음되는 글자의 성조를 1성으로 표기한 예는 ‘甚麼’와 ‘李王家的’가 있다. 성조의 변화 규칙에서 현재와 다른 부분은 현재는 경성으로 표기되지만 1성으로 표기하는 경우이다.

3.4. 기타 음운 현상

김경탁은 『중국어발음해석』에서 성모, 운모, 성조 외에도 여러 음의 변화 현상 즉 ‘啊’의 변화,¹²⁾ ‘了/咧’음의 변화, ‘不用/부윙’의 음의 변화,¹³⁾ ‘沒有/메이유’의 음의 변화,¹⁴⁾ ‘麼/마’자의 음의 변화, 한 글자가

11) 여기에서 ‘不好’의 ‘好’는 ‘hào’로 본 경우이다.

12) ‘啊’를 ‘呀’, ‘哇’, ‘哪’ 등으로 발음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다.

여러 가지 뜻을 갖는(一字異義) 경우¹⁵⁾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兒’의 변화와 힘주어 읽는(重念) 경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보기로 한다.

1) ‘兒’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 [iɛ]뒤에 ‘兒’가 오면 앞 음은 /어/로 변한다. 예를 들면 ‘些/세兒’는 ‘些/씨어兒’로 변한다.

(2) [ai], [an] 뒤에 ‘兒’가 오면 /아/로 변한다. 예를 들면 ‘名片/뽨兒’는 ‘名片/파兒’로 변한다.

(3) [ei], [ən] 뒤에 ‘兒’가 오면 /어/로 변한다. 예를 들면 ‘人/옌兒’는 ‘人/여兒’로 변한다.

(4) [u], [au], [ou] 뒤에 ‘兒’가 오면 약하게 읽으면 변하지 않고 강하게 읽으면 /기/를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油/위兒’는 ‘油/위어兒’로 변한다.

(5) [i], [y], [tɕ], [tɕʰ], [s], [z], [ts], [tsʰ], [s] 등 뒤에 ‘兒’가 오면 평성이면 변하지 않고 上·去聲이면 /어/를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有趣/취兒’는 ‘有趣/취어兒’로 변한다.

(6) [a], [o], [aŋ], [tɕʰ] 등외에는 쉽게 결합하게 됨으로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這樣/양兒’ 같은 경우이다.

이상 내용을 보면 얼화운의 한글 표기가 현대 중국어의 얼화 변화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기의 정확성 여부는 향후에 논하기로 하고 우선 이렇게 설명한 규칙이 『중국어(1)』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보기로 한다. 해당 예를 보면 ‘這兒/여얼/, 那兒/나얼/, 玩意兒/완이얼/, 昨兒/췌얼/, 簾兒/뽨얼/’ 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哪’로 사용할 경우 /얼/로 표기 하였는데 예를 보면 ‘上那(哪)兒 /양나-얼/, 那(哪)裏 /나-리라이/’ 등이 있다.

13) 경쾌하게 발음하면 /붕/ 혹은 /병/으로 변한다. 예를 들면 ‘不用提了’에서 ‘不用’을 /부웍/ 혹은 /붕땡/이라고 발음한다.

14) ‘來了沒有/메이위/에서 ‘沒有’를 /무/로 발음할 수 있다. 의문부사로 사용될 때 ‘嗎’의 뜻과 같고 그 음도 변한다.

15) 예를 들면 傳/뽨은 ‘傳記’의 의미도 있지만 ‘傳한다’는 의미도 있다.

2) 악센트(重念):

김경탁(1939:28~29)은 ‘악센트라는 것은 두 자 혹은 두 자 이상으로 된 단어나 구에서 중요한 문자의 성모와 운모를 강하게 올려 읽는 경우를 가리킨다. 악센트를 표시할 때는 중선 | 을 그어 이것을 부호로 사용한다.’ 그는 단어의 악센트와 구의 악센트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단어의 악센트를 예로 들면 ‘學校’에서 ‘學’자를 강하게 발음하고, ‘我們’에서 ‘我’자를 강하게 발음한다. 구의 악센트의 아래와 같은 문장을 예로 들었다.

我喝茶.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차를 마신다.)

我喝茶. (나는 차를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신다는 것이다.)

我喝茶. (나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차를 마신다.)

그러나 『중국어(1)』에서 악센트 표기를 하지 않아 실제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나오기

본문에서는 철학자이며 한학자인 우암 김경탁의 중국어 교육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그의 저서 가운데 그동안 연구된 바가 없는 『중국어발음해석』(1939)과 『중국어(1)』(1940)을 중심으로 그의 한글 표기 체계를 살펴보았다. 성모·운모·성조 표기 외에도 기타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정리해보았다. 『중국어(1)』의 성모 표기에 사용된 한글 자모는 25개, 운모 표기에 사용된 한글 자모는 42개이다. 『중국어(1)』을 중심으로 성모와 운모의 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성모의 한글 표기 특징: ① ‘ㅇ+음소’의 형태 /ㄹ/, /ㄴ/, /ㅇ/, /ㄹ/을 사용하여 설첨후음을 표기하였고, 설면음은 /ㅈ/, /ㅊ/, /ㅍ(ㅍ)/로, 설첨전음은 /ㅊ/, /ㅊ/, /ㅍ/로 표기하였

다. ② [p]는 /ㅍ(ㅍ)/로, [t]는 /ㄷ(ㄷ)/로, [k]는 /ㄱ(ㄱ)/ 등 두 세트로 표기하였다. ③ [f]를 /ㅍ/로 표기하였다. ④ [l]는 /ㄹ/로 표기하였다. 운모 한글 표기 특징: ① [i]는 /ㅣ/로, [ɨ]는 /-ㅣ/로, [ɯ]는 /ㅡ/로 표기하였다. ② [ai]는 /ㅏㅣ/로, [ei]는 /ㅓㅣ/로, [uai]는 /ㅑㅏㅣ/로, [uei]는 /ㅓㅓㅣ/로 표기하였다. ③ [au]는 /ㅑㅓ/로, [iau]는 /ㅑㅓㅏ/, [ou]는 /ㅓㅓ/, [iou]는 /ㅓㅓㅏ/로 표기하였다. ④ [ɔ]를 『중국어(1)』에서는 /ㅓ/로 표기하고 『중국어발음해석』에서는 /ㅓ+⁰²/로 표기하였다.

고찰 결과 김정택이 『중국어발음해석』에서 정한 한글 표기 체계와 『중국어(1)』에 나타난 한글 표기 체계는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차이가 있는 것은 [ɔ], [iou], [yɛn], [yŋ] 등 음이다. 하지만 이 음들은 왜 다르게 표기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설명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 김정택의 한글 표기 체계를 보면 많은 한글 자모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 각 음을 최대한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저서를 통해 우리는 당시 중국어 음성학에 대한 대략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필자는 이 외에도 동일시기에 출간된 『지나어대해』와 『중국어회화전서』의 한글 표기 체계와도 비교하였다. 서로 다른 표기 체계를 채택한 이유 그리고 타당성 여부는 지면의 제한으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에서 밝히도록 한다. 향후 김정택의 중국어 학습서와 더불어 중국어회화, 한학 저서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또 동일시기 중국에서 출판한 초급 한어 교과서, 그리고 음성학 저서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자 료】

- 김경탁 저술; 劉作舟 교열(1938), 『現代支那語公式會話』, 京城: 聚英庵出版部.
김경탁(1955), 『(學生)漢韓字典』, 서울: 東國文化社.
_____(1940), 『中國語(第1輯)』, 京城: 聚英庵.
_____(1939), 『中國語發音解釋』, 京城: 聚英庵.
문세영(1938), 『支那語大海』, 영창서관.
_____(1934), 『滿洲語自通』, 이문당.
박재연·김아영(2011), 『漢語會話書續編』, 서울: 학고방.
_____(2009), 『漢語會話書』, 서울: 학고방.
이상은(1940), 『最新華語教科書』, 동경동광서점.
장지영(1939), 『中國語會話全書』, 群書堂書店.
최현배(1971), 외솔 최현배 전집11 『우리말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논 저】

- 김현철·김아영(2015), 「열운 장지영의 중국어교육 및 열운문고 소장 중국어 학습서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93호.
박형익(2014), 「1945년 이전 한국의 중국어 학습서와 사전의 서지 조사」, 『한국어학』, 65권.
서미령(2015), 「『中國語會話全書』의 중한 역음 표기 연구」, 『인문과학』, 105집.
_____(2014), 「『漢語指南』의 중·한 역음 표기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89호.
옥소영(2009), 「『漢語獨學』과 『支那語大海』의 중한역음표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윤사순(2006), 「김경탁 선생 100주기에 띄우는 글」, 한국공자학회논문집, 『공자학』.
이승환(2006), 「우암 김경탁 선생의 유교 연구」, 한국공자학회논문집, 『공자학』.

한국공자학회 편(2006), 『金敬琢 先生의 學問과 思想』, 한국공자학회 2006년
추계 학술대회, 한국공자학회.

원고 접수일: 2016년 9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6년 11월 1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2일

Abstract

A Study of Kyung-tak Kim's
Korean Phonetic Notations for Chinese Books

XU MEIL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translation between Chinese and Korean through two books, *Zhongguoyu fayin jieshi* (1939) and *Zhongguoyu I* (1940). In these books, initial consonants were transcribed into the following elements of the Korean alphabet. ① The palatal initials were transliterated as ‘ㄷ, ㄸ, ㄴ(ㄸ)’, the alveolar sibilant initials were transliterated as ‘ㄸ, ㄸㄸ, ㄸ’, and the retroflex initials were transliterated as ‘ㄹ, ㄹ, ㄹ, ㄹ’. A form of ‘ㅇ + phoneme’ was used. ② ‘b, d, g’ etc. were transliterated in two groups. ③ ‘f’ was transliterated as ‘ㅍ’. ④ ‘l’ was transliterated as ‘ㄹ’. Finals were transcribed into the following elements of the Korean alphabet. ① ‘i’ was transliterated as ‘ㅣ’, ‘-i[ㅣ]’ was transliterated as ‘-ㅣ’, and ‘-i[ㅣ]’ was transliterated as ‘-ㅣ’. ② ‘ai’ was transliterated as ‘ㅣㅣ’, ‘ei’ was transliterated as ‘ㅣㅣ’, ‘uai’ was transliterated as ‘ㅣㅣㅣ’, ‘uei’ was transliterated as ‘ㅣㅣㅣ’. ③ ‘ao’ was transliterated as ‘ㅇ’ㅇ, ‘iao’ was transliterated as ‘ㅇ’ㅇ, ‘ou’ was transliterated as ‘ㅇ’ㅇ, ‘iou’ was transliterated as ‘ㅇ’ㅇ. ④ ‘er’ was trans-

* Lecture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literated as ‘ㄴ’ in *Zhongguoyu I*, while it was transliterated as ‘ㄴ+□’ in *Zhongguoyu fayin jieshi*. This research may contribute to filling in the gaps in the data concerning historical Chinese phonology. Future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on basic Chinese textbooks published at the same time as these two books.

